하니웰과 손잡은 LG, 자율車 보안 기술까지 확보

통합 보안·ADAS 솔루션 공동개발
국내외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자료/LG전자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행사장에 설치된 LG전자 전시 부스에서 홍보모델이 전기차 솔루션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업체들과 기술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제 인증도 잇따라 획득하는 등 미래 주요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사업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는 것.

LG전자는 항공기 및 차량용 보안 분야의 글로벌 강자인 미국 하니웰사와 자율주행차 통합 보안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차량보안은 자율주행 시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양사는 자율주행차의 보안 전 영역을 통합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연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양사의 보안 솔루션은 ▲외부 통신망을 통해 시도되는 해킹 탐지 및 방어 ▲USB 포트 등을 통해 차량 내부 네트워크를 겨냥한 보안 위협 대응 ▲각종 전장부품 별 보안 기술 ▲수많은 차량들의 보안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클라우드 보안 관제 등이다.

LG전자는 외부 통신망을 통해 차량을 노리는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인 IDPS와 텔레매틱스(자동차용 통신시스템), AV내비게이션 등 개별 전장부품에 탑재되는 방화벽,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니웰은 항공기 보안 분야에서 3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차량 내부 보안 기술력을 갖췄다. 업계 유일의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VC사업본부장 이우종 사장은 "하니웰과 함께 기존에 없던 올인원 보안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이 자율주행차의 필수조건인 보안 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지능형 주행보조시스템(ADAS) 소프트웨어 기업인 헬라 아글라이아와 지난 7일에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미국 NXP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독일 자동차 전장부품 헬라의 자회사인 헬라 아글라이아는 ADAS 편의기능 소프트웨어 강자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계약으로 LG전자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차선 유지, 보행자나 차량 인식 등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ADAS 관련 솔루션을 오는 2020년까지 공동 개발한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동통신 반도체 시장 강자인 퀄컴과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를 설립했다. 12월에는 고정밀 지도 분야의 강자인 히어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내에 LG전자의 텔레매틱스와 히어의 3D 고정밀 맵 정보를 결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5월에는 IVI(차량 내장용 인포테인먼트 기기) 분야 SW 플랫폼 표준단체 제니비GENIVI)연합의 부회장사도 맡았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자신 있어 하는 IDPS와 텔레매틱스라는 자율주행차 부품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회사와 MOU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 중으로 보인다"며 "자율주행차는 어느 기업 혼자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자율주행차 진영 싸움에서 영역을 미리 넓혀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KT "평창 5G 올림픽 준비는 끝났다"

공식 파트너 최초 홍보관 개관식
광화문광장서 '라이브사이트' 운영

①

②

① KT 평창 5G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인텔코리아 권명숙 사장, 강원도 정만호 부지사,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이희범 조직위원장, KT 황창규 회장,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부터) 등 주요 인사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5G 준비 완료'를 기념하는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② KT가 강릉 올림픽파크에 마련한 5G 홍보관(5G. 커넥티드.)의 '텔레포트(Teleport)'에서 입체영상으로 스키점프대에 서 있는 듯한 체험을 하고 있다. /KT

내달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드디어 끝났다. 5G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태블릿 형태로 제공된다.

이날 KT는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중 최초로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 준비를 끝냈다고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 사장, 권명숙 인텔코리아 사장이 참석했으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 사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2년 당겨 평창서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는 아웃사이더 트랙으로 경기를 즐겼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경기 속으로 들어가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싱크뷰, 타임슬라이스, 360VR(가상현실), 옴니뷰 등의 기술을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관한 올림픽파크는 아이스아레나 등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빙상 경기장들이 밀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올림픽파크에는 일반 시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5G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5G 홍보관이 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 조성된 '5G 커넥티드'는 2월 8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5G 커넥티드는 5G를 상징하는 오각형 형태로 구성됐다. 1세대(1G)부터 5G까지 이동통신의 역사와 5G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과 같이 데이터가 흐르는 듯한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면 스키점프대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영상 체험관이 자리 잡고 있다.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5G 시티'와 5G 네트워크를 통한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을 게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 챌린지'도 만날 수 있다. '토치 릴레이 챌린지'에서는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실제 성화봉송 주자가 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강릉뿐 아니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KT 라이브사이트'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직접 경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방문객이 직접 봅슬레이 선수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봅슬레이 챌린지', 5G의 특징인 초저지연성을 활용해 모션 인식으로 봅슬레이와 드론, 자동차를 조정해 볼 수 있는 '커넥티드 스피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도 끝마쳤다. KT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적용할 5G 기지국을 비롯해 5G 네트워크 장비 구축과 함께 서비스를 위한 최적화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실제 5G망에서 '5G 네트워크-단말-서비스'간 연동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준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2년 전부터 KT와 협력해 2016년 5G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해 필요한 모든 기술 확보하고 평창 올림픽 5G 단말 개발을 완료했다"며 "평창 시범서비스에서는 28기가헤르츠(㎓)대역 800메가헤르츠(㎒)폭을 지원하는 단말을 처음 선보인다.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도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빠르다"고 설명했다.

/강릉(강원도)=김나인 기자 silkni@

SKT, BTS와 손잡은 까닭은

엔터테인먼트 3사와 음악 플랫폼 론칭

SK텔레콤이 엑소·트와이스·방탄소년단 등 강력한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3사와 손잡고 연내 신규 음악 플랫폼을 론칭한다.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도입해 음악 산업에 큰 획을 긋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와 31일 서울 을지로 2가 SK텔레콤 본사에서 음악사업 협약식을 열고, 연내 음악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월 1일부터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아이리버가 엔터테인먼트3사 음원의 B2B 유통 운영을 맡는 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SK텔레콤과 제휴를 맺은 엔터테인먼트 3사의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약 15%이며, CD 등 음반시장 점유율은 약 50%를 상회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텔레콤은 연내 음악 플랫폼 서비스를 신규 론칭한다. AI·5G·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을 도입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SK텔레콤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도록 AI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할 계획이다. 신규 음악 플랫폼은 자사 AI 플랫폼 '누구'와 연동해 음성 인식 스피커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의 핵심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5G와 함께 활성화될 AR·VR 등 미래 영상 기술을 활용해 '보는 음악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음악서비스와 함께 자사 및 관계사의 상품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스마트홈, 영상(옥수수), 커머스(11번가) 등 생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차별적 고객 혜택 패키지 개발을 하는 식이다.

SK텔레콤과 엔터테인먼트3사는 K-POP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아티스트들이 비디오 콘텐츠를 활용해 해외 팬 층을 넓혀갈 수 있도록 4사가 힘을 합칠 계획이며, 아시아 시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음악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음원 저작권 보호와 거래 기록 투명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거래 비용을 절감해 창작자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은 음악 유통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개념적으로만 논의된 바 있어 주요 음악 플랫폼 사업자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음악 산업에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데이터 기반 음악 콘텐츠 사업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음악 콘텐츠 사업은 이용자들의 아티스트 선호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공연·굿즈 등 콘텐츠 파생 상품을 기획·제작해 아티스트와 사업자 모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다. 재능 있는 신예 아티스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 활동이 가능한 공유 인프라 구축, 크라우드 펀딩 형태의 공연 기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아이리버는 엔터테인먼트3사의 콘텐츠를 멜론, 지니 등 음악 플랫폼 사업자 및 신나라, 핫트랙스 등 음반 도소매업체에 공급한다. /김나인 기자

JYP 정욱 대표, 빅히트 방시혁 대표, SK텔레콤 노종원 유니콘랩스장, SM 김영민 총괄사장(왼쪽부터)이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